

## II. 현대운문 영역

1. 춘설(정지용) .....	2
2. 눈물(김현승) .....	
3. 배꼽을 위한 연가 5(김승희) .....	
4. 님의 노래(김소월) .....	
5. 수의 비밀(한용운) .....	6
6. 윤사월(박목월) .....	
7. 자화상(윤동주) .....	7
8. 두보나 이백같이(백석) .....	9
9.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고정희) .....	
10. 산상의 노래(조지훈) .....	
11. 꽃땀(신석정) .....	11
12.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신경림) .....	13
13. 들길에서 마을로(고재중) .....	
14.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신동엽) .....	
15. 홀린 사람(기형도) .....	
16. 풍장(황동규) .....	
17. 뻘뻘용-영화 사회학(유하) .....	
18. 사령(김수영) .....	14
19.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정호승) .....	
20. 종소리(박남수) .....	
21.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황인숙) .....	
22. 꽃(이육사) .....	
23. 한계령을 위한 연가(문정희) .....	16
24. 성탄제(오장환) .....	
25. 깨끗한 식사(김선우) .....	
26. 무등을 보며(서정주) .....	18
27. 상행(김광규) .....	19
28. 나비와 철조망(박봉우) .....	
29. 초토의 시8-적군 묘지 앞에서(구상) .....	
30. 오랑캐 꽃(이용악) .....	
31. 섬진강1(김용택) .....	21
32.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나희덕) .....	22
33. 등꽃 아래서(송수권) .....	

[13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뱃부리와  
서늘습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가고 ㉠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웅송거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워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움짖 아니 기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좁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春雪)」 -

- \* 우수절(雨水節) : 24절기의 하나. 입춘(立春)과 경칩 사이
- \* 이마받이 : 이마를 부딪치는 짓
- \* 웅송거리고 : 몸을 움츠러들고
- \* 햇웃 : 숨을 두어 지은 웃

(나)

새는  
자기의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자기가 앉은 자리에  
자기가 남긴 체중이 잠시 흔들릴 뿐

새는  
자기가 앉은 자리에  
자기의 투영이 없다.  
새가 날아간 공기 속에도  
새의 동체가 통과한 기척이 없다.

과거가 없는 탓일까  
새는 냄새나는  
자기의 체취도 없다.  
울어도 눈물 한 방울 없고  
영영 빈 몸으로 빈털터리로 빈 몸뚱아리 하나로  
그러나 막강한 풍속을 거슬러 갈 줄 안다.  
생후(生後)의 거센 ㉡ **바람** 속으로  
갈망하며 꿈꾸는 눈으로  
바람 속 내일의 숲을 꿰뚫어본다.

- 황지우, 「출가하는 새」 -

(다)

매화는 요염이오 해당화는 신선이라  
지란은 춘향이오 지기를 만나온 듯

㉢ **한죽(寒竹)**은 주락하여\* 군자를 대하온 듯  
벽오동 젖은 잎에 머리 붉은 봉황이 깃들이고  
창창한 늙은 술에 백학이 춤을 추고  
행화는 나뭇거리 술잔에 가득하고  
접시꽃 담홍하여 날빛을 기울이고

㉣ **버들은** 실이 되고 **피꼬리는 북\***이 되어  
연류간\* 왕래하여 흐르는 소리 이어지니  
흐르는 빗소리에 티끌 꿈 깨이거다.  
청려장 둘러 짚고 앞뒀에 올라가니  
잔디마다 속이이요 포기마다 꽃이로다.  
꽃 꺾어 손에 들고 물 먹어 양치하니  
㉤ **청향이** 입에 가득하고 화기가 옷에 묻는다.

유수를 따라가서 바위 위에 앉았으니  
㉥ **공산이** 적막한데 **접동새** 슬피 울고  
산화는 난만한데 벌나비 쌀쌀하다.  
청산을 흰 구름은 부용같이 피어가서  
선인을 찾아와서 곳곳이 따라오고  
현포\*의 맑은 안개 띠같이 둘러 있어  
㉦ **신선은** 날만 여겨 곳곳이 쫓아온다.

- 작자 미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

- \* 주락하여 : 마음이 상쾌하고 정신이 깨끗하여
- \* 북 : 베틀에서 날실 사이로 씨실을 푸는 기구
- \* 연류간(烟柳間) : 안개가 끼인 버드나무 사이
- \* 현포(玄圃) : 선경과 같이 좋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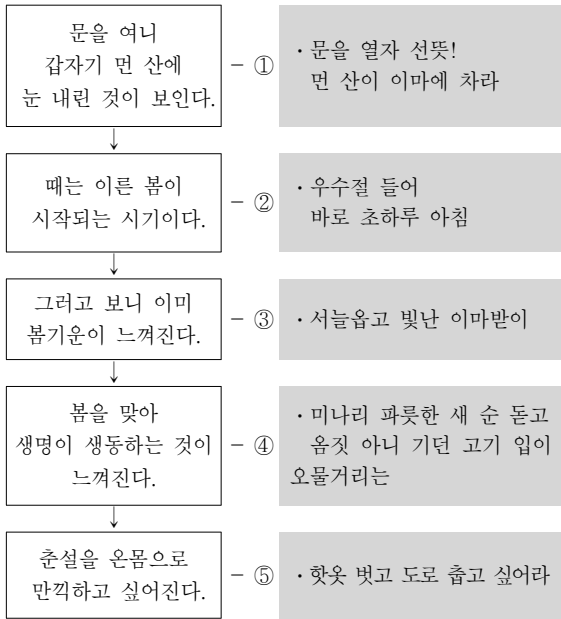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대상의 속성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시선이 이동하는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다)는 선경후정의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14. (가)와 (다)에 드러난 자연의 공통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삶이 투영된 대상으로 화상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 ② 화자에게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작품 창작의 계기가 된다.
- ③ 화자가 본받으려고 하는 대상으로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역할을 한다.
- ④ 이상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화자의 지향점을 집약적으로 제시한다.
- ⑤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곳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15. (가)의 내용 흐름을 다음과 같이 파악할 때, 근거가 되는 시어가 적절하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16. (나)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시행의 서술어에 주목했어. 부정적 의미의 서술어를 반복하여 새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 ② 시상 전개 방식에 주목했어. 새의 외면을 응시하다가 새의 내면을 응시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듯해.
- ③ 제목에 주목했어. 제목에 사용된 '출가'와 '새'는 이 시의 주제의식과 시적 대상을 파악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야.
- ④ 수사법에 주목했어. '자취'에서 시작하여 '체중'과 '자리', 그리고 '체취'로 시적 대상의 의미를 점층적으로 확대하는 것 같아.
- ⑤ 화자의 태도에 주목했어. 시적 화자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를 새의 모습에 투영한다고 할 수 있어.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나무를 군자의 덕목을 지닌 존재로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 ② ㉡는 늘어진 버들가지 사이로 새가 나는 모습을 베를 짜는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 ③ ㉢는 온몸으로 봄의 운치를 누리는 모습을 통해 대상과의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산행을 다니면서 느끼는 흥겨운 심정을 감정 이입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⑤ ㉢는 자연을 즐기는 흥취를 자신이 신선이 된 것처럼 표현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8. ㉠과 ㉡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모두 상승적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 ② ㉠과 ㉡는 모두 엄숙한 작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 ③ ㉠은 일상적 의미, ㉡는 상징적 의미가 주로 드러난다.
- ④ ㉠은 화자와 대립되는 존재, ㉡는 화자와 동화된 존재이다.
- ⑤ ㉠은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는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19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복설** : (부엌을 향하여) 어머니.  
**처** : (무언)  
**복설** : (조심스러이) 어머니.  
**처** : (㉠ 말없이 슬뚜경을 열어보고 다시 바다만 바라본다.)  
**복설** : (하늘을 쳐다보고 혼잣말로) 날이 좀 깼라나? (다시 모(母)를 보고 좀 크게) 어머니.  
**처** : 이년아 숨넘어가지 않는다. 왜 귀찮게 자꾸 부르니 부르길. 오래잖아 닭 울 텐데 까라는 조개나 깔 것이지.  
**복설** : (투명한 모의 말에 어이가 없어) 아이 참 거 대답 좀 하시면 어떻수.  
**처** : 말하기도 귀찮아.  
**복설** : 너머 역정만 내지 마요. 아버지께서도 술만 잡숫고 밤낮으로 트집만 잡으시는데 어머니마저 그러시면.  
**처** : ㉡ 또 한 척 들어왔나 본테.  
**복설** : 아까 소나무 선창에 댔다가 물결이 세니까 이쪽으로 다시 대는 거 아녜요?  
**처** : 그 옆에 칠성기 단 배 말이다.  
**복설** : 나루 못 미쳐 판돌네 배여요. 허—연 형겼으로 붉은 돛을 누덕누덕 긴 걸 보면 모르세요?  
**처** : (불평이 찬 말로) 너는 추녀 끝에 웅배기 좀 못 치겠니? 고 빗방울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들으면 오장육보가 바삭바삭 오구라드는 것 같다.  

**(중략)**

**복설** : 어머니도 너머 역정 내지 마세요. 한숨에 땅이 푹 꺼질 것 같수. (뒤란으로 나간다. ㉢ 먼 마을 개 짖는 소리 '멍~'하고 뒷산에 울려온다. 파도 소리 점점 커진다.)  
**처** : (불길한 예감에 놀라 부엌에서 뛰어나오며 눈을 휩쓰고) 그 날이 꼭 오늘이야. 그날이 오늘이야.  
**복설** : (뒤란에서 쫓아 나와 매달리며) 어머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석이가 불쌍치 않으세요. 이 비 쏟는 춘 밤에 조개 잡어가지고 오다가도 어머니 이러시는 것만 보면 애가 타서 하는데.

14. <보기>의 ㉠,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한글 맞춤법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  
 ㉠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  
 ㉡

- |       |       |
|-------|-------|
| ㉠     | ㉡     |
| ① 속히  | - 높이  |
| ② 꼼꼼이 | - 반듯이 |
| ③ 더욱이 | - 뚜렷이 |
| ④ 도저히 | - 깨끗이 |
| ⑤ 꾸준히 | - 일찍이 |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힌 뿔부리와  
 서늘웁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웅승거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돌고  
 움짚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春雪)」 -

\* 움짚 아니 기던 : 움직이지 않던

\*\* 햇웃 : 숨을 두어서 지은 웃

(나)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목념의 가장자리  
 지나 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  
 이제 와 위대한 적막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 고 은, 「속(續) 눈길」 -

(다)  
 초라한 지붕 씩어가는 추녀 위엔 막 한 통이 쇠었다.  
 밤서리 차게 내려앉는 밤 싱싱한 녀쿨이 사그러붙던 ㉤밭. 지  
 붓 밑 양주(兩主)\*는 밤새워 싸웠다.  
 막이 땀땀히 굳고 나뭇잎새 우수수 떨어지던 날, 양주는 새  
 바가지 꿰어 들고 초라한 지붕, 씩어가는 추녀가 덮인 움막을  
 작별하였다.

- 오장환, 「모촌(暮村)」 -

\* 양주(兩主) : 바깥 주인과 안 주인, 즉 부부를 뜻함.

15. (가)~(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그리움을 주된 정서로 하고 있다.
- ②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현실적 삶의 고통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 ④ 엄숙한 어조를 통해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⑤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16. (다)를 <보기>의 조건에 따라 각색하기 위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 소설로 바꾸어 쓸 것
- 원시(原詩)의 창작 의도, 시적 상황을 유지할 것

- ① 현경 : 시간적 순서에 따른 순행적 구성 방식으로 사건을 서술해야겠어.
- ② 수연 : 양주가 밤새워 싸운 이유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사실감을 살려야겠어.
- ③ 철수 : 시적 화자가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묘사하고 있는 점을 살려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해야겠어.
- ④ 정호 : 초라한 지붕, 썩어가는 추녀, 움막 등의 배경 묘사를 통해 당시의 쇠락한 농촌 현실을 구체적으로 그려야겠어.
- ⑤ 영미 : 양주가 '새 바가지 꿰어 들고' 움막을 나서는 대목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희망에 부푼 모습으로 표현해야겠어.

17. 시상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담긴 시적 화자의 내면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젠 추위 정도는 견딜 수 있어.
- ② 나쁜 봄보다는 역시 겨울이 좋아.
- ③ 서늘한 기운을 통해 봄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고 싶어.
- ④ 서러운 현재보다는 인정 넘치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 ⑤ 봄이 왔으니 꽃구경을 가려면 옷차림을 가볍게 해야겠어.

18. ㉠에 나타난 표현 방법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무슨 전락회에 온 듯 /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纖細)하고도 /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 ② 마음의 기(旗)는 /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나에게 원이 있다면 / 뉘우침 없는 일몰(日沒)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 가는 / 그 일이라
- ③ 이른 봄 수풀이 초록빛 들어 풀 내음새 그윽하고 가는 댓잎에 초승달 매달려 애틡한 밝은 어둠을 너 몹시 안타까워 포실거리며 훗훗 목메었느니
- ④ 겨울 논길 지나며 / 맑은 피로 가만히 숨 멈추고 얼어있는 시린 보릿잎에 얼굴 대보면 / 따뜻한 피만이 얼 수 있고 따뜻한 가슴만이 진정 녹을 수 있음을 / 이 겨울에 믿습디다
- ⑤ 신음 소리 통곡 소리 탄식 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 살아오는 삶의 아픔 /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19.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은 모두 부정적 상황을 상징한다.
- ② ㉠, ㉡은 모두 시적 화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를 의미한다.
- ③ ㉠은 시적 화자가 시련에 빠진 상태, ㉡은 추운 겨울의 물리적 시간을 의미한다.
- ④ ㉠은 시적 화자를 방황하게 만드는 존재이고, ㉡은 인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다.
- ⑤ ㉠은 시적 화자가 도달한 평화와 안정의 상태, ㉡은 인물이 처한 부정적 현실 상황을 암시한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나라의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 있는 교량은 2003년 말을 기준으로 17,622개이다. 교량의 총 길이는 1,600km에 이르고 있으며, 평균 교량 길이는 91.6m이다.

교량의 유지 관리는 안정성, 내구성 및 사용성 확보를 위해 하는 청소, 점검, 안전 진단, 보수, 보강, 성능 개선, 개축 등 교량 사용 기간에 행해지는 교량에 관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량을 제대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청소와 같은 단순 업무에서부터, 교량의 설계와 시공 과정은 물론 재료와 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여러 업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교량 유지 관리는 통상적으로 정비, 보수, 보강, 개축 등으로 대별해 왔으며, 그 비용은 교량의 특성이나 사용 기간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교량의 적정 유지 관리 비용은 교량 형식, 주변 환경, 교통량, 사용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제시된 것은 없지만 1981년 OECD 보고서에 의하면 OECD 국가들은 1980년 당시 교량의 연간 유지 비용을 초기 교량 건설 비용의 0.5~2.5% 정도 사용하였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고속도로 교량에 대한 유지비는 1996년부터 급격하게 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90년대 초의 수선 유지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되었다. 이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인해 시설물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유지 관리보다 건설에 치중한 결과이다.

우리 나라의 2003년 교량 수선 유지비는 공용 기간, 교량 형식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폭 11.2m의 2차로 교량을 기준으로 할 때 1km당 약 1,66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1994년 미연방도로국은 교량의 상태 등급에 따른 교량의 평균 보수 비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교량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보수 비용이 매우 적고, 상태가 나빠짐에 따라 그 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량의 수명 연장 비용은 유지 관리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수준이 높을수록 교체 비용이 줄어 전체 관리 비용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교량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지 관리 수준을 높여 교량의 사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  
 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 한용운, 「수(繡)의 비밀」 -

\* 심의: 예전에,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옷옷.

(나)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한 그루  
 찻레로 서 있고 싶다. [A]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오늘은  
 송이송이 흰 찻레꽃으로 피워놓고 [B]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 듯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C]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 [D]

아픔이 출렁거리  
 늘 말을 잃어갔다.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뽀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D]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 문정희, 「찻레」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④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32.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수(繡)의 비밀’에서 역설(逆說)은 화자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즉 임의 부재라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현실을 부인(否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인은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드러난다. 하지만 행위의 과정에서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주체적 선택이자 극복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를 통해 화자의 일상적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에는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군.
- ③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에는 화자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 ④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에서 수를 놓는 과정을 통해 화자의 자기 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군.
- 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에는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33.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서 있고 싶다’가 [B]와 [D]에서도 반복되면서 현재의 화자가 느끼는 간절함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A]의 ‘그리운 가슴’은 과거의 대상과 관련된 정서를, [D]의 ‘꿈결’은 현재 상황에 대한 느낌을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B]의 서로 ‘꽃’이 되지 못한 아쉬움은 [D]의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의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변모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C]의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B]의 ‘추억’ 속에 있는 과거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C]의 ‘말을 잃어갔다’는 것은 [D]의 ‘무성한 사랑’으로 인해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11. <보기>의 분류 절차에 따라 용례를 A와 B로 나눈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분류 절차〉

- 각 용례에서 동사 ‘들다’의 의미를 확인함.
- 확인한 의미의 상호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함.

〈용례〉

ㄱ. 감기가 들다.	ㄴ. 가방을 들다.
ㄷ. 단풍이 들다.	ㄹ. 고개를 들다.
ㄴ. 반기를 들다.	ㅁ. 보험을 들다.

- |              |            |
|--------------|------------|
| <b>A</b>     | <b>B</b>   |
| ① ㄱ, ㄷ       | ㄴ, ㄹ, ㅁ, ㅂ |
| ② ㄱ, ㄷ, ㅁ    | ㄴ, ㄹ, ㅂ    |
| ③ ㄱ, ㄷ, ㅂ    | ㄴ, ㄹ, ㅁ    |
| ④ ㄱ, ㄹ, ㅁ    | ㄴ, ㄷ, ㅂ    |
| ⑤ ㄱ, ㄷ, ㄹ, ㅂ | ㄴ, ㅁ       |

12. <보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제5항

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예 어깨, 잔뜩, 살짝, 듬뿍, 몽땅

㉕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예 국수, 법석

제27항

㉖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칼날, 꽃잎, 만사위, 흩어불

- ① ㉔를 보니 모음 뒤나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가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되어 있군.
- ② ‘납작’이 아니라 ‘납작’으로 적는 것은 ㉕의 ‘법석’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③ ‘짹짹하다’가 아니라 ‘짹짹하다’로 적는 것은 ㉕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군.
- ④ ‘물뽕’이 아니라 ‘물뽕’으로 적는 것은 ㉕의 ‘칼날’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⑤ ‘깎뚜기가’ 아니라 ‘깎뚜기로’ 적는 것은 ㉕의 ‘만사위’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화상(自畫像)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나) 선제리 아낙네들

고은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똥 개들이 시끌썩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룽발 김칫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목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①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야 가법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 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밝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리다

(다) 그 나무

김명인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B]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답디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피 올릴 수 있을까요?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②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
- ③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 ④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이 드러난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화상(自畫像)』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自像畵)’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 내고 있는 그림이다.

- ① 제1연에서 ‘외판’,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등으로 보아,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겠군.
- ② 제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 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속의 그림이므로, 화자가 지향해 온 바를 담고 있겠군.
- ③ 제3연~제5연에서 ‘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들로 보아,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겠군.
- ④ 제6연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자상화를 들여다보는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음을 의미하겠군.
- ⑤ 제6연에서 ‘추억처럼’에는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겠군.

15.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 ②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 ③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 ④ [B]는 [A]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각한다.
- ⑤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군산 목은장’과 ‘선재리’ 사이의 거리로, ‘한밤중’, ‘십릿길’과 더불어 ‘아낙네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 ② ㉡: ‘끼리끼리’와 상관되는 것으로, 공동체적 삶에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 ③ ㉢: ‘늦된 나무’가 피워 낼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한 것으로,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 ④ ㉣: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봄길’로,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이 간절했음을 나타낸다.
- ⑤ ㉤: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으로,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